

# ODA 리포트

2022  
Vol.6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행인: 김종덕 담당: 전형모, 김정현, 전혜은, 이지인 감수: 한덕훈

전화번호: 051-797-4666 E-mail: jh-kim@kmi.re.kr/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2년 5월 31일



## Contents

1

국제 개발  
협력 동향

2

SDGs 관련  
국제 동향

3

전문가 칼럼

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5

주요 행사

# 1 국제 개발 협력 동향

## OXFAM

### 옥스팜, 남수단 홍수 증가 대응<sup>1)</sup>

- 남수단의 홍수 증가로 기아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5월부터 7월까지 약 83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770만 명보다 7% 높은 수치입니다.
- 홍수는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젠더간 폭력, 보건위생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대피소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험하게 하고 교육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특히 조혼 등으로 고생하는 소녀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 최근 구호단체 직원에 대한 공격으로 남수단을 인도적 지원이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스팜은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비난하고 정부와 무장 단체의 인명 구조 원조활동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UK

### 영국 외무부, 원조 예산 대규모 삭감<sup>2)</sup>

- 공식 감사 결과 영국 정부가 42억 파운드의 원조 예산 삭감을 너무 빨리 추진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거나 파트너와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 영국 정부가 원조예산을 영국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대폭 전환함에 따라, GNI 대비 원조 예산을 0.5%로 삭감하였습니다.
- 보건과 교육 부문 원조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금이 삭감되었는데 15개 국가 및 지역 사무소의 자금 지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1) As rains in South Sudan start again, communities face more flooding amid a growing hunger crisis, says Oxfam | Oxfam in Horn, East and Central Africa, 2022.4.6.(접속일: 2022.4.11.)

2) UK Foreign Office rushed £4.2bn of aid cuts, official audit finds | Global development | The Guardian 2022.3.31.(접속일: 2022.4.11.)

## WFP

우크라이나 식량 위기 대응<sup>3)</sup>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세계 식량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고,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빈곤국에게 음식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 4억 명 분량의 식량을 재배하던 식량이 풍족하던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5명 중 1명은 아동의 식사를 위해 식사를 줄이거나 거르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과 아이 4백만 명이 인접국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후, WFP는 백만명 분의 긴급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규모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33만 개의 빵을 하르키우시의 가정에 제공하고, 리비우에서 실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수미와 하르키우 분쟁 지역으로 두 개의 인도주의적 기관을 통해 WFP 비상식량을 공급 중입니다.
- WFP의 추산에 따르면 310만 명의 실항민, 난민,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해 향후 3개월간 59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 그린피스

남대서양 공해성 저인망 어업 제한 요구<sup>4)</sup>

-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근거로 아르헨티나의 EEZ는 어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 밖의 남대서양 공해에서 남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린피스의 Arctic Sunrise호가 남획 지역인 남대서양 블루홀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서양 연안의 전 구간에서 불법 어업 중인 선박의 선체에 “ILLEGAL”이라 페인트칠을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는 공해의 해양 보호구역을 제공하는 세계 해양조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게 국가 차원의 구속력을 가진 해저 보호구역 조성을 요구하며, 승인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저인망 어업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업 기술 중 하나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3) WFP reaches one million people with life-saving food support in conflict-stricken Ukraine | World Food Programme 2022.3.30.(접속일: 2022.4.11.)

4) Greenpeace - Search Result 2022.4.6.(접속일: 2022.4.12.)

## 굿네이버스

### 키르기스스탄의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추진<sup>5)</sup>

- 키르기스스탄은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중하위소득 국가입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오쉬 주와 바트켄 주는 기초 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작물의 소득 창출이 어렵습니다.
- 굿네이버스는 코이카와 함께 2025년까지 키르기즈 공화국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인프라 제공, 농촌지역 여성 대상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농축산 소득증대사업 지원, 현지 농업부 역량강화 및 정책 제언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니세프

###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현황<sup>6)</sup>

- 4월 29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사망자는 210명이고 의료시설 150개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만여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어린이와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 유니세프는 블루닷 센터를 통해 피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구호물품이 조달되었으며 긴급구호물품 1,450톤이 리비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 어린이 24만 명 이상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식수와 의료 장비, 아동보호 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굿네이버스 공식 홈페이지 |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굿네이버스 (goodneighbors.kr)2022.3.31.(접속일: 2022.5.2.)

6)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위한 구호활동 현황 (2022.05.02. 기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nicef.or.kr)2022.5.2.(접속일: 2022.5.3.)

## 2 SDGs 관련 국제 동향

### UNEP

#### Clean Seas 캠페인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화 법제 추진 성공<sup>1)</sup>

- (국제동향)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게 소화되었을 경우 독성과 기계적 효과로 인해 음식 섭취 감소, 질식, 행동과 같은 유전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인간도 미세 플라스틱을 음식물을 통해 섭취, 공기를 통해 흡입,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체내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유전자 변화, 두뇌 발전 및 호흡 주기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 UNEP Clean Seas 캠페인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정책 변화를 강조한 결과 케냐 나이로비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유엔 환경 총회<sup>2)</sup>(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End plastic pollution: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까지 협약을 완성코자 합니다.
- \* UNEA-5의 전체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강화”이며 UNEA-5.2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안건의 환경적 차원의 이행을 위한 UNEP의 강화’의 주제로 열림.
- \* UNEA-5는 COVID-19로 인해 1·2부로 나누어 개최됨. 2021년에 비대면 총회(2021.2.22.-23, 예산 등 행정사항 결정)와 대면총회(2022.28.-3.4,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개최<sup>3)4)</sup>
- (정책시사점) 이번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의 생산·유통, 소비, 처리, 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유엔 환경총회를 계기로 플라스틱 폐기물 등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한 세계적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1) UNEP 기사 내용 재정리;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inside-clean-seas-campaign-against-microplastics>

2) 유엔환경프로그램이 주최, 193개 유엔 회원국의 대표자, 기업,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합의함. 2012년 6월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UN 환경의 강화를 촉구하면서 만들어졌고 2년에 한 번 씩 개최 중임.

3)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about-united-nations-environment-assembly>

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력 마련 등 논의(2022.3.3.)”

;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5178&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94%8C%EB%9D%B C%EC%8A%A4%ED%8B%B1&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1>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2022년까지 2018년 대비 해양 플라스틱 30%저감, 30년까지 50%저감을 목표로 하며 정책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어구·부표 회수 보증금제도 도입, 스티로폼 부표의 50%를 친환경부표로 교체, 하천관리청에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 차단 의무 부과, 주변국과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공동대응방안 마련
  - 2) 섬지역 집하장 설치 및 정화운반선 보급 확대, 드론 등 ICT 기반 모니터링 및 고효율 수거장비 개발, 어업인의 자발적 폐어구 수거 시행
  - 3)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전처리시설 구축, 양식용 부표 등 재활용 의무율 단계적 상향,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홍보 확대 및 구매 촉진
  - 4) 해양폐기물 법 제정 및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 조사, 기업 해변입양 운동 및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 2021년 12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하고 페루, 르완다에서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부처간 안건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통합된 플라스틱 저감 정책 지원 및 추진을 기대합니다.
  -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저감을 포함한 녹색경제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협약 작성 시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김재훈 인턴  
jh-kim@kmi.re.kr/ [odacenter@kmi.re.kr](mailto:odacenter@kmi.re.kr)

## IMO

## 해양 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감축을 위한 IMO-FAO GloLitter Partnership Project(GLP)<sup>5)</sup>를 Asia 지역으로 확대

- (배경) 해양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 종에게 위협이 되는 물론이고 인간 보건, 어업 활동에도 피해를 초래합니다.
- 국내 해역에 미세플라스틱 농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무영향예측농도\*를 넘는 지역이 2066년에는 연안 10%, 2100년에는 연안 82%, 외해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sup>6)</sup>
  - \* 해당 농도 이하에서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해양플라스틱 생태 유해성을 고려할 때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적 행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 (국제동향) IMO는 ‘글로벌리터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범위를 아시아 지역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RegLitter-Asia 사업의 참여를 한국에 제안했습니다.(‘21.11)
- (국내동향) 우리나라 역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 \*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19),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19~‘23),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 등
- (정책시사점) 해양쓰레기 관리 기술과 정책 경험을 갖춘 한국이 RegLitter-Asia 선도파트너국 참여 시 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통해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를 달성하는데 기여 가능합니다.
- 세부적으로는 파트너 국가가 법률·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여 해양 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상 운송 및 어업 부문의 플라스틱 저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해양 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감축을 위해 노르웨이 정부의 초기 지원 아래 IMO와 FAO가 진행 중인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선도파트너국 10개국과 파트너국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본 프로젝트는 관리 역량 강화와 법률·정책 및 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해상 운송 및 어업 부문의 저-플라스틱 전환을 지원함.

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우리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해양생물에 영향 주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 2021.6.25. (접속일: 2022. 4.7)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김재훈 인턴  
jh-kim@kmi.re.kr/ [odacenter@kmi.re.kr](mailto:odacenter@kmi.re.kr)

## UNEP

### GRID\*-Geneva, 모래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UNEP 결의안 채택<sup>7)</sup>

- \* The 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 GRID: UNEP와 스위스 환경부, 제네바 대학 간 환경문제 솔루션 관련 파트너십
- (배경) 모래는 지역 사회 생계 제공, 생물 다양성 유지 등 SDGs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 (국제동향) ‘모래의 지속가능성 위기 타파를 위한 열 가지 전략적 권고’<sup>\*</sup>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모래의 추출, 이용 및 관리 과정의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과 모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어젠다 설정을 촉구했습니다.
- \* UNEP Grid-Geneva와 Geneva Environment Network는 공동으로 ‘모래의 지속가능성 위기 타파를 위한 열 가지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 2022.4.26.

<표> 모래의 지속가능성 위기 타파를 위한 10가지 권고

권고1	중요 생태계 요소와 도시 확장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모래를 인식
권고2	모래 전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 결정, 의제 설정 및 실행에 참여
권고3	재생순환 가능 패러다임 전환
권고4	지역과 국가 현실을 고려한 통합된 정책 및 법적 체제 채택
권고5	광물권과 합의 기반 모래 자원 소유권과 접근권 확립
권고6	데이터 기반 모래 자원 매핑, 모니터링 및 보고
권고7	모범 사례 및 국가 표준, 일관성 있는 국제 체제 구축
권고8	모래 사용 감축, 대체품으로 대체, 모래 제품 재활용으로 자원 효율성과 순환성 촉진
권고9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 인식하에 모래를 조달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급원 확보
권고10	지식 향상, 계층 완화의 주류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하천, 연안, 육상 복원

자료: UNEP, Sand and Sustainability: 10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avert crisis, 2022

- (국내동향) 모래채취는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훼손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을 방해하고 바다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7) GRID - News details ([unepgrid.ch](https://unepgrid.ch)), 2022.04.25. (접속일: 2022.5.9.)

; <https://unepgrid.ch/en/about-us/news-updates/173>



- 서해 EEZ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국토해양부가 5년간 서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현재 업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중입니다.
- \* 남해 EEZ는 2021년 7월 골재채취 기간 만료 이후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함.<sup>8)</sup>
- (정책시사점)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해저 지형변화와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일본은 바다모래 채취를 지역별로 전면 중단하고 있음. 영국은 2007년 법률에 기반한 바다모래 채취 가이드라인을 제정, 채취지역에서의 규제사항을 적용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피해대책에 활용
-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바다모래 재활용을 진흥하고 골재채취 시행 시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이해관계자 간의 바다모래 활용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김재훈 인턴  
 jh-kim@kmi.re.kr/ [odacenter@kmi.re.kr](mailto:odacenter@kmi.re.kr)

8) 국토해양부 설명자료,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가 시작됩니다.', 2020.10.30. (접속일 2022.5.13.);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epage=1&id=95084685](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epage=1&id=95084685)

## 3

## 전문가 칼럼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SGD와 개발협력 제도화 시대: 과제와 방향성

우리나라는 '선진공여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면서 그간 원조의 신흥 모범국, 성공적인 '한국형 개발모델'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과 동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른바 'K-방역'의 성공과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를 기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활발한 개발협력 정책 논의 및 방향성 모색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실행 측면에서 합리성, 공정성 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며, 단순한 원조 실행을 넘어 개발원조의 책무성과 철학적 비전 제시가 더욱 중요시 되고있는 점, 시혜적 관점을 넘어 국가 브랜드로서의 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은 0.15 %, 총 예산은 24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29개 국가 중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0년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결코 타 공여국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화의 측면에서도, 2017년 OECD DAC은 동료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2019년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문서화된 파트너십 기본정책은 이른바 '선진 공여국'에서도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2020년 11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국내 개발협력 관련 정부 정책 결정 및 조정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 개발협력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원조의 분절화 및 사업의 중복을 극복, 개발협력 평가의 효과성, 평가역량 제고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2021년 2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출범했고, 외교부 주관의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제도화의 측면에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성 속에서도 공적개발원조의 제도화 수준을 단기간에 높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원조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성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개발협력 아키텍처에서 늘 제기되어 왔던 분절화, 사업의 중복성 문제 외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섹터 간 사업 비중의 불균형과 예산의 편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증가한 ODA 예산의 부처별 변화를 보면 특정 부처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습니다. KOICA(국제개발협력단)를 포함한 외교부와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상당히 높으며 그 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비교적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처의 예산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기준 해양수산부에게 책정된 예산은 약 143억 원으로 ODA 시행 부처 중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은 해당 섹터가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류분야로 설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과 편중성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개발협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면 긍정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수출입 화물의 99.7%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세계 7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위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양 분야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개발협력 섹터별 SDG 이행 점검관련 지표의 정교화 필요가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DG 14번은 개발협력 SDG 이행 점검 지표에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목표의 지표 정교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왜 해양수산 부문이 우리나라 개발협력 구조와 SDG 관련 중점 섹터로 선정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보다 앞선 해양수산 중점 국가의 SDG 세부 평가 지표를 참조하되 우리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ODA 거버넌스, 비전 등이 고려된 평가지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십 문제도 우리의 도전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정량적 수치의 개선과 정책 프레임의 구축이 곧바로 개발협력의 효과성으로,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달성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프레임의 규정성, 이로 인한 사업 분절화의 심화,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성이 높아질수록 동의구조는 더욱 정교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구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조직 간 상이한 논리와 맥락, 노하우와 역량이 잘 조정되고 융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DAC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전략 문서로 마련되었으니 '우리의 파트너십의 수준은 보다 진전되었다'라는 평가는 단면적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상호적 필요와 시너지를 위한 방법론이며, 일방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연구소 및 학계-시민사회-민간기업 간의 상호 신뢰가 쌓여지고 있는지 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입니다. 변화된 환경, 특히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지형에서 개발협력에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인 사업간 분절성 극복과 포용성 달성, 통합적 접근의 방법론 구축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현장에서는 사업의 '통합적인 접근', '융복합성', '포용성' 등이 강조되어왔습니다. 통합적 접근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간 분절화 극복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강조되어온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 상호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 이슈까지 고려된 융·복합 사업 발굴과 관련 개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열린 소통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의 주체들이 포용성이라는 가치로 더 다가가고 신뢰를 쌓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김성규 박사

〈주요 이력〉

현)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현) 고려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조지아

#### 조지아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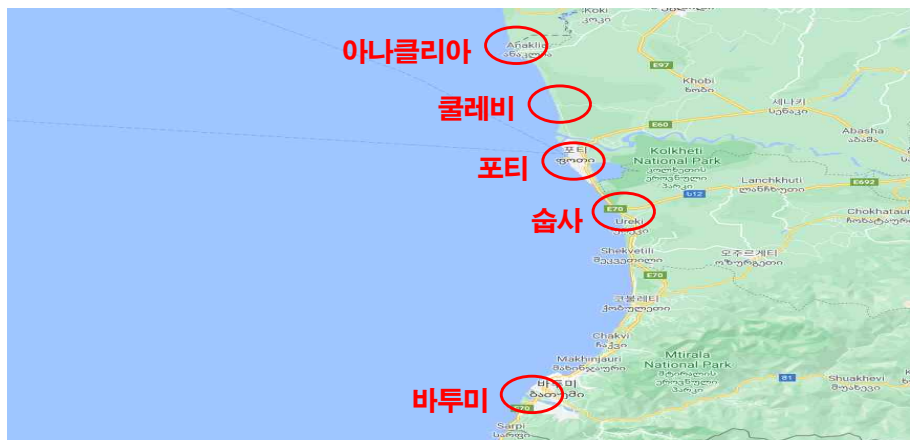
- 선진 해양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해양정보를 수집, 가공함으로써 선박 항행지원, 안전항로 확보 및 항만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 추진
- 국제수로기구 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 국제 영향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추진

##### ● 사업 개요

- 조지아의 해양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원하고자, 공동 해양조사를 실시(수로측량 등)
- 공동 해양조사를 통하여 기술역량 향상 및 최신 해양정보 수집(해양관측 등)
- 수집된 해양정보의 가공 및 서비스를 위한 기술력 전수(종이해도, 전자해도 제작 등)
- 조지아의 해양조사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해양관측소, 수로측량선, 관측장비 등 제공
- 조지아의 해양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 교육훈련 초청

##### ● 사업 구역

포티(Poti), 바투미(Batumi), 쿠레비(Kulevi), 아나클리아(Anaklia), 솅사(Supsa) 주변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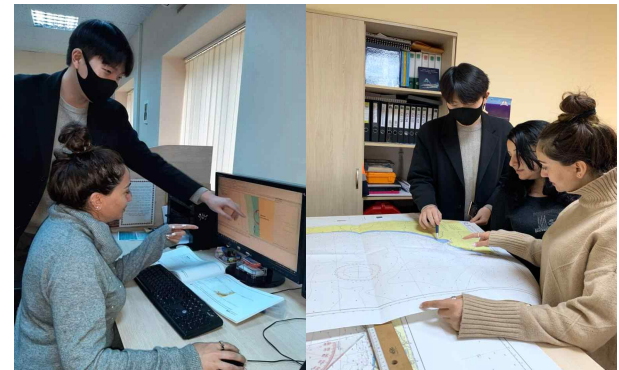


사업 구역도

● 추진현황(2020~2021년)

- 포티, 바투미, 쿠레비 해역 공동 수로측량 및 품질관리 수행 : 다중빔 측량 945km, 단빔 측량 272km, 안선측량 20km, 저질조사 40점 노·간출암 조사 4군소, 3개월 조석관측 2개소, 측량원도(축척 1:5000) 25도엽 제작
- 포티, 바투미, 쿠레비 해역 공동 해도제작 및 품질관리 수행 : 측량자료를 활용하여 종이해도 3종, 전자해도 7셀 제작
- 포티 해역 공동 해양관측 및 품질관리 수행 : 4개 정점에 대한 다층 유향·유속 자료 수집
- 포티 해양관측소(해수면 높이, 풍향·풍속, 기온, 기압 관측) 구축 및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수집, 포티항 기준면 관리를 위한 측량기준점표 5점 매설
- 해양조사 장비 22종 공여(음향측심기, 음속측정기, 플로터, 해도제작 소프트웨어 등)
- 소형 수로측량 전용 선박(KOLKHIDA호, 4ton) 공여
- 조지아 수로국 직원 2명을 국제수로기구(IHO) 수로측량 교육·훈련에 초청

● 관련사진



[조지아 수로국 공동 해양관측 및 기술전수]

● 향후계획

- 해양조사 분야 기술 교육·훈련 기회 확대, 조지아 수로국의 국제수로기구 활동 참여 연구 등을 통해 조지아의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해양조사 기술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 최신 항해용 간행물(해도 등)을 제작하여 조지아 해역의 항해안전을 증진하고, 사고예방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등 국가 이익 창출
-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역량 강화
- 우리나라와의 우호 관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강화 및 정보교류·협력 기반 마련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김우주 주무관  
[kwj4525@korea.kr](mailto:kwj4525@korea.kr)



## 5 주요 행사



### 향후 계획

#### 2022년 OCEANAID 2차 워크숍 및 해양수산 ODA 담당자 평가 교육

- 일정
  - 7월말 예정, 100분/ 온라인
- 진행 및 담당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관리·평가팀
- 참석대상
  - 해양수산부 및 소속·유관기관 ODA 사업담당자 약 30여 명
  - 해양수산 ODA 자문위원 중 희망자
- 주요내용
  - (개요) 평가 개요, 종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평가 등급제, 평가 품질관리, 평가 윤리
  - (중간평가) 중간평가 추진 체계 및 절차, 중간평가 사례 공유
  - (종료평가) 종료평가의 필요성, 종료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종료평가 사례



## 2022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5일(토)~26(일), 2일간  
13:00~16:00 총 6시간, 온라인 실시간 강의/ 신청기간 6.2(목)~6.19(일)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부산시국제교류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석대상 및 기관) 해양수산부 ODA 시행기관 담당자, 해양수산 ODA에 관심있는 대학생, 일반인 등
- **주요내용**
  - 개발협력의 핵심 기초 및 참여 전략: 핵심이론 및 정책방향
  - 해양수산 ODA의 이해: 개념, 동향,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 해양수산 ODA 사례: 해양수산, 해운항만, 해양과학
- **관련안내**
  - 아래 링크 참고, 관련 문의: 부산국제교류재단 개발협력팀(051-711-6857, s.bfic7903@bfic.kr)  
<http://www.bfic.kr/new/contents/d1.asp?pmode=view&num=17134&q=&qa=&pa&geno=1>

## KOICA 글로벌연수: IUU 어업관리 역량강화(2021-2022)

- **사업목적:** IUU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 체계와 방법 공유를 통해 수원국의 IUU 어업 감시 체계 구축 환경 마련에 기여
- **사업내용:** 전문가 발표와 액션플랜 작성 실습 워크숍
- **기대효과:** 케냐 해양수산 공무원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지원
- **연수시기:** 2022년 9월 26일~30일/온라인연수
- **시행기관:**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 기추진 행사

### 2022년 OCEANAID 1차 워크숍

#### ● 일정

- 5월 20일(금) 9:30~12:00/ 온라인

#### ● 참석대상

- 해양수산부 및 소속·유관기관 ODA 사업담당자 약 30여 명
  -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훈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부경대학교 (사)해외어업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주요내용

- 사업 진행상황 소개, 관련 건의사항 공유, ODA 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입력 방법 안내 교육 진행 등
- 진행 예정인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및 권역별 소워크숍 수요조사 참여 안내
- 소워크숍의 경우 2차 OCEANAID 워크숍과 연계개최('22.7) 예정
- 차기 OCEANAID 해양수산 ODA 담당자 평가 교육 안내

#### ● 요청사항

- 신규 ODA 사업 발굴 시 그린·뉴딜 ODA 중심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융합 ODA와 유무상 연계 방안 고려 필요
- 기재부 심의 결과 해수부 ODA의 많은 사업 수와 사업 분절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대표 사업 및 후속 사업 위주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 연수 사업의 경우 초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 성과 관리, 활용 계획 등이 필요. 사후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
- COVID-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대면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차후 워크숍 개최 시 각 사업의 해양수산부 담당자도 참여할 것을 요청

